

## 고려 초조대장경의 연구 과제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on Chojo-Taejanggyong, Korea First *Tripitaka*

김 성 수(Kim, Sung-Soo)\*

###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연구과제 |
| 2. 초조대장경의 조조 배경 및 성립 | 5. 결 론               |
| 3. 초조대장경의 구성         | <참고문헌>               |

### <초 목>

이 논문은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초조대장경 DB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려 초조대장경의 성립 및 간행 배경 등과 그 入藏 内容에 관하여 주제서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재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규명하여야 할 과제 등을 논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조대장경 조조의 배경 및 동기는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佛法을 숭봉하고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연구과제로써, ① 초조대장경의 조조 단계, ② ‘國前本’과 國後本’의 규명 문제, ③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함차의 차이 및 각 경전 권수의 異同 문제, ④ 「초조대장목록」의 복원과 관련 한 문제 ⑤ 변상도의 차이 및 변화 문제, 등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초조대장경의 디지털 DB구축 및 조사연구> 프로젝트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의 현황과 그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 초조대장경의 실물을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각 경전의 函次數 및 卷數 등에 입각하여 초조대장경의 목록인 「초조대장목록」을 嚴正하게 복원하면서 위의 문제들을 각각 규명하여야 할 주요과제가 남아 있음을 논술하였다.

要語 : 고려, 초조대장경, 주제서지, 「초조대장목록」의 복원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5년 11월 9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urrent issues and controversial topics on the production of <Chojo-Taejanggyong(初雕大藏經)> published in the Koryo Dynasty, analyzes their contents, context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using the subject bibliographical approach, and also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These topics have been identified while conducting the project of building a database of <Chojo-Taejanggyong> of which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is in char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purpose of producing <Chojo-Taejanggyong> was to enhance Buddhism and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invasion of the Kitan during the Koryo Dynasty. Also examined are the current issues which should be discussed and addressed through the long-term research in this project

Second,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es such as ① the process of engraving and producing <Chojo-Taejanggyong>,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editions and versions, that is, 'Kukjeong-bon' and 'Kukhu-bon', ③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volumes and the order of tables of contents of <Chojo-Taejanggyong> and <Chaejo-Taejanggyong(再雕大藏經)>, ④ the restoration of the bibliography of <Chojo-Taejanggyong> and ⑤ the variances in illustrations accompanied in different editions should be all systematically investigated and discussed. Also some topics to be further researched and resolved during this project have also been identified.

A thorough examination of different editions and versions of <Chojo-Taejanggyong> leads to the need for restoring <Chojo-TaejangMongnok(初雕大藏目錄)> which is the bibliography of <Chojo-Taejanggyong>, based on the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volumes of each scripture, and further delving into the above mentioned issues.

Key words : Koryo Dynasty(高麗). <Chojo-Taejanggyong(初雕大藏經)>. Subject Bibliography. Restoration of <Chojo-TaejangMongnok(初雕大藏目錄)>

## 1. 서론

大藏經이란, 釋迦牟尼(佛陀 Buddha)가 45년 동안 敎說한 내용을 그의 死後에 제자들이 집대성하여 三藏<sup>1)</sup>으로 結集한 것을 의미한다.

後漢 때 처음으로 중국에 불교를 전한 迦葉摩騰과 竺法蘭에 의하여, A.D. 67년(後漢 永平 10)에 洛陽에서 「四十二章經」<sup>2)</sup>이 최초로 번역된 이래, 6세기 이상 梵語佛典들이 중국에서 漢文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漢譯 경전들에 대한 내용별 분류목록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730년에 智昇(668-740)에 의하여 당시까지 중국에서 編撰된 佛典目錄 중 가장 체계적이고 정밀한 불전목록인 「開元釋教錄」이 편찬되었다. 즉, 지승은 「歷代三寶記」 및 「大唐內典錄」 등을 기초로 하여, 후한 孝明帝 영평10년(67)부터 唐 玄宗 開元18년(730)까지 664년 동안에 중국에서 번역된 불전 2275部 7046권을 검토하여, 그 중 1076부 5048권을 漢譯者別·主題別로 정리한 불전목록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개원석교록」에 근거하여, 송 태조의 發願으로 官版大藏經<sup>3)</sup>(971-983)이 완성되었다. 이 대장경은 지승의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총 1,076부 5,048권의 불전을 13만매의 목판에 새겨서, 천자문 순으로 배열한 480개의 函에 차례로 收藏하였다.<sup>4)</sup>

위의 중국 官版대장경이 성립된 후, 한편 고려에서는 顯宗에 의하여 대장경의 雕造를 발원함으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조조가 시도된 대장경이 바로 高麗 初雕大藏經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초조대장경 DB 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고려 초조대장경의 성립 및 간행

1) ‘삼장(三藏)’은 ‘세 개의 광주리’라는 뜻으로,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이라 불렀다. 인도에서는 이 삼장을 나뭇잎에 새겼는데, 이를 貝葉經(貝葉經)이라 한다.

2) 일상의 수행에 있어서 극히 요긴한 42가지의 덕목들을 간추려 나열한 경전임.

3) ‘蜀版’ 또는 ‘開寶版大藏經’이라고도 함.

4) 이 경판은 1125년 금나라가 침입한 뒤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배경 등과 그 入藏 內容에 관하여 주제서지적인 관점에 접근하여봄으로써, 향후 이 연구에서 주제서지적인 관점에서 규명하여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 등을 논술하고자 한다.

## 2. 초조대장경의 조조 배경 및 성립

### 2.1 초조대장경의 조조 배경

초조대장경의 조조 배경 및 그 동기와 관련한 사항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高麗 再雕大藏經(현재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을 조조할 때 李奎報가 지은 <大藏刻版君臣祈告文>라 볼 수 있다. 즉,

… 이제 宰相 및 文武百官과 더불어 큰 願을 發하여 그 부서를 旬當官司에 두고 이를 쫓아 經始케 하였습니다. 그 草創의 단서를 살피건대, 옛날 顯宗 2년(1011)의 일입니다. 거란(契丹)의 병력이 대거 침입하여, 顯宗이 난을 피해 남행하였으나 거란병은 松岳에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므로, 君臣이 위없는 大願을 발하여 대장경 板本을 撰刻한 후에 비로소 거란병이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생각건대 오직 대장경이 하나이요, 선후의 조판이 하나이요, 임금과 신하가 또한 하나일 뿐이오니, 어찌 유독 저 때에 거란병만이 물러가고 지금 달단(遼旦; 몽고)은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하늘의 보살피심이 한결같은 뿐입니다. 이제 至誠으로 발원하는 바가 前朝에 부끄럼이 없사옵 주 업드려 바라옵나니, 諸佛聖賢과 三十三天은 이 간절한 기원을 들으시어 신통의 힘을 빌리시어 완악하고 추악한 무리들이 자취를 거두어 멀리 달아나 다시는 이 강토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어 나라 안팎이 편안하고 母后와 태자가 만수무강하고, 三韓의 國祚가 영원무궁케 하소서.<sup>5)</sup>

라 하였다. 즉, 이 기고문을 작성한 이규보를 비롯한 고려의 군신과 백성들은, 顯宗 당시(1011) 거란의 침략에 맞서서 대장경의 판각을 위한 대원을 발하였기 때문에 거란병이 스스로 물러갔음을 확신하고, 13세기 몽고군의 침략 당시에도 몽고에 맞서서 다시 재조대장경 판각을 위한 큰 誓願을 발하고 그 雕造에 임한다

5) 이규보, <大藏刻版君臣祈告文>.

면 몽고군 역시 스스로 물리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상태에서 위의 기고문을 작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을 비롯한 대장경 조조의 동기는 오로지 佛法을 崇奉하는 맑고 바른 마음에서 정성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임을 말해 준다.<sup>6)</sup>

## 2.2 초조대장경의 성립

그렇다면 초조대장경의 조조 및 그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해서는, 초조대장경의 조조와 관련한 관련 문헌과 중국(宋) 및 거란(契丹)의 대장경을 수입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헌을 혼합·대조하여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우선, 초조대장경의 조조와 관련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大覺國師文集」<sup>7)</sup>에서 그 내용을 추출하여 볼 수 있다. 즉, 이 문집의 권제 14 중 ‘奇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sup>8)</sup>에서,

智昇이 편찬한 「開元釋教錄(730)」과 圓照가 지은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794)의 양본에 수록된 경·율·론 등과 宋에서 새로 번역한 경론(宋新譯經論) 등 육천여권을 모두 그 판각(雕鏤)을 끝마쳤습니다.<sup>9)</sup>

라 하였고, 또한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sup>10)</sup>에서

顯祖(顯宗; 1009~1031)께서는 五千軸의 秘藏을 새겨 내셨고, 文考(文宗; 1046~1083)께서는 千萬頌(십만송(?))<sup>11)</sup>의 契經(거란대장경)을 새겨 내셔서, 正

6) 李箕永, “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제48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10.

7)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문집(文集).

8) 일본국의 여러 법사(法師)에게 교장(敎藏)의 소(疏)를 구하기 위하여 보내는 편지.

9) 「大覺國師文集」 卷第14, “奇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10) 諸宗教藏을 調印 하면서 남긴 글.

문이 비록 원근에 다 퍼졌다 하겠으나, 章疏가 혹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sup>12)</sup>

라 하였다.

위의 두 인용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① 「개원석교록」 ② 「정원속개원석교록」 所收의 三藏(경을론)과 그리고 ③ 「거란대장경」의 印本과 ④ 宋新譯經論 등이 綜合되어 초조대장경의 큰 틀이 성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현종 때 5,000축의 비장을 새겼다’는 사항은 바로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5,048卷의 불전을 조조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軸과 卷의 개념이 類似하고, 그 수량 또한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송으로부터 개보칙판대장경(971~983)을 수입한 것은, 먼저 991년(成宗 10)에 「개원석교록」에 입각하여 조조한 개보칙판대장경 481函 2500권이 들어왔고,<sup>13)</sup> ‘이어 1019년에 그 부족분이 도래되었을 것’<sup>14)</sup>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 조조의 1차 사업은 1011년(현종 2)부터 1029년까지 18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완성 시기는 1029년 4월로 추정되고 있다.<sup>15)</sup>

둘째, ‘文宗(1046~1083) 때 천만송(십만송(?))의 契經(거란대장경)을 새겨正文이 원근에 퍼졌다’는 사항은 거란대장경을 수입하고, 이를 참조하여 초조대장경을 보완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거란대장경과 관련하여 ‘문종 17년(1063) 3월 병오(丙午)일에 거란에서 대장경을 보내왔다’<sup>16)</sup>는 史實에 입각하면, 1063년에

11) 서울대학교 소장 「大覺國師文集」(奎 40847) 第15卷, “代宣王諸宗教藏影印疏”의 原文을 보면, ‘十萬頌’의 ‘十’字 위에 빼침(ノ) 획의 일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千萬頌’이라 옮겨 적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십만송’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옳을 듯하다.

12) 「大覺國師文集」 卷第15, “代宣王諸宗教藏影印疏”

13) 「高麗史」 卷93, 列傳卷第6, 韓彥恭條. “彥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 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秘藏詮 逍遙(詠) 蓮華心輪”

14) 강순애,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2집(1996), 117. 참고

15) 「高麗史」 卷5, 世家 第5, 顯宗己巳20年, 夏4月條. ‘대장경의 조성을 축하하는藏經道場 이會慶殿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수입된 거란대장경본(本)에 입각하여 그 후에 초조대장경을 보완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원조의 「정원속개원석교록」은 지승의 「개원석교록」보다 65년 이후인 宋朝 794년(貞元 10)에 완성된 것이다. 현재 고려재조대장경의 碯函(제529함) 「穢跡金剛禁百變經」 1권(K.1264)부터 合函(제548함)의 「十地經」(K.1388)에 이르기까지의 불전들은 「정원속개원석교록」所收의 경전들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위 인용문 ‘기일본국제법사구집교장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초조대장경에 「정원속개원록」 소수의 불전들이 入藏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의천이 ‘기일본국제법사구집교장소’에서 밝힌 송신역경론은 宋朝에서 편수되고 송 眞宗(997 ~ 1021) 때에 頒賜된 신역경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022년<sup>17)</sup> 및 1083년<sup>18)</sup>에 송으로부터 佛典이 수입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인용문과 그 분석에 입각하면, 초조대장경은 ① 「개원석교록」 및 ② 「정원속개원석교록」에 수록된 불전, 그리고 ③ 거란대장경의 인본 및 ④ 송신역경론 등이 편입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이상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조조 大業의 1차 사업은 1011년(현종 2)부터 18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의 완성 시기는 1029년(현종 20) 4월로 추정되고 있다.<sup>20)</sup>

16)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文宗17年癸卯, 3月條.

17)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顯宗13年壬戌, 5月條. ‘병자일에 韓祚가 송으로부터 귀국할 때, 송의 황제가 불전(釋典) 一藏 등을 보내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18) 「高麗史」 卷9, 世家 卷第9, 文宗37年癸亥, 3月條. ‘기축일에 왕이 태자에게 명령하여, 송나라에서 보내온 대장경을 접수하여 開國寺에 보관하도록 하고, 곁하여 도량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19) 강순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초조대장경에는 「大中祥符法寶錄」, 「貞元新定釋教目錄」, 「續貞元釋教錄」 등에 수록된 불전들도 함께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순애,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 제12집 (1996), 120-122).

20)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顯宗己巳 20年, 夏 4月條. ‘대장경의 조성을 축하하는 장경도량(藏經道場)이 會慶殿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초조대장경 조조 2차 사업은 문종 때인 1063년 이후에 거란에서 수입된 대장경을 참고하여, 1차 사업의 刻板 체제로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3차 사업은, 1083년(문종 37) 중국에서 들여온 송신역경론 30질을 1087년(宣宗 4)까지 그 조조를 완성하여 초조대장경의 판각을 마무리한 결과, 1087년 當該 년에 590질 5,924권의 대장경 판각사업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조조의 시작은 1011~1029년의 조조를 그 1차 사업으로 보고, 그 이후 1087년까지는 1차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초조대장경 조조의 총 소요기간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76년간에 걸친 거국적인 대사업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3. 초조대장경의 구성

초조대장경의 구성 및 편입(入藏)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목록 등 직접적인 1차자료는 현재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구성 내용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재조대장경의 목록(內容) 속에서 해당 사항들을 추정하고, 여기에 현존하는 初雕本에서 그 函次 및 卷數 등을 조사하여 보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먼저, 현존 하는 재조대장경 소수 제 불전의 내용별 구성에 대하여 그 함차별 구성상황 등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天函(제1함)의 「大般若波羅蜜多經(K.1)<sup>21)</sup>」 600권 → 英函(제480함)의 「集諸經禮懺儀(K.1087)」 2권 : 현종 때의 초조본을 再雕한 것으로서, 「개원석교록」 소수의 경전들이 수록.<sup>22)</sup>

21) 이하 'K.1' 등의 數字表示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1976년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의 영인본을 完刊할 당시 발행한 「高麗大藏經」 제48권 總目錄에서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각 고유불전에 부여한 번호를 의미하는 것임.

22) 다만 재조본에서 초조본과 그 編次를 달리한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守其가 바로잡은

- ② 杜函(제481함)의 「佛說大乘莊嚴寶王經(K.1088)」 4권 → 銘函(제528함)의 「新華嚴經論(K.1263)」 40권 : 「개원석교록」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에만 수록되어 있는 91함의 불전은 송신역경론 등이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현종 때 초조본이 나온 후 德宗·靖宗을 거쳐 문종 때에 續刊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杜函(제481함; K.1089)부터 靛函(제510함; K.1256)의 30帙은 송조에서 編修되어 송 眞宗(997-1021)조에 각지에 頒賜된 것으로 보임.
- ③ 璠函(제529함)의 「穢跡金剛禁百變法經(K.1264)」 1권 → 楚函(제570함)의 「佛說佛名經(K.1404)」 30권 : 문종 때 續刻하여 초조본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穢跡金剛禁百變法經(K.1264)」 - 「佛說十地經(K.1388)」 9권은 圓照의 「정원속개원석교록」 소수의 불전을 수록.
- ④ 更函(제571함) : 「대장목록(大藏目錄; K.1405)」 3권 ; 재조대장경의 목록
- ⑤ 霸函(제572함; K.1406) → 洞函(제639함); K.1498) : 高宗 때 재조대장경 조조 당시에 새로 入藏시킨 것.<sup>23)</sup>

위와 같은 재조대장경의 函次 중에서 ‘更函’(제571함)에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이 편입되어 있으므로, 서지학적 등에서는 그동안 ‘초조대장경은 楚函(제570함)까지 편입된 불전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의 함차는 更函(제571함)에서 일단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봄에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전국과 일본(南禪寺)에 흩어져 있는 초조대장경을 디지털화하면서 1차로 간행한 「高麗初雕大藏經集成 2」에 의하면, 현재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조대장경의 인본 중 「法苑珠林」

것으로, 그 사실은 「교정별록」에 明記되어 있다.

23) ① 李箕永, “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제48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1-17.  
 ② 鄭秘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③ 鄭秘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3-108. 등등.

卷第82<sup>24)</sup>가 卷子本으로 現存 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sup>25)</sup> 이 「법원주림」 권제82 첫째장의 제목 하단에 ‘會二十八紙’라 기입되어 있으므로, 이 권제82는 초조대장경의 函次 중 ‘會函’(제583함)에 편입되었고 28張의 종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또한 1988년에 成保文化財團에서 간행한 「湖林博物館所藏初雕大藏經調查研究」에서 위 「법원주림」 권제82에 대하여 函次는 更函의 「大藏目錄」보다 뒤에 該當하는 것으로, 그 刊行은 初雕大藏經의 雕造가 一段落된 뒤에 追雕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sup>27)</sup>고 해제하고 있다.

24) 「법원주림」 권제82.

A) 書誌事項 / 書名: 法苑珠林. 著者事項: 唐 道世 撰. 卷次: 卷第八十二. 函名: 會. 形態: 卷子本. 張數: 28張. 紙質: 楮紙. 紙高: 29.3cm(第1張 기준). 匡高: 21.7cm(第1張 기준). 紙幅: 45.5cm(第1張 기준). 세로발끈 폭: 보이지 않음. 行字數: 23行 14字. 軸 길이: 30.5cm, 지름: 0.9cm, 朱色. 板首題: 法苑珠林 卷第八十二 第十四張 會. 所藏處: 湖林博物館. 其他事項: 原表紙의 길이는 15.5cm이며 다른 板들에 비해 글자가 서투르며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본문에는 異体字와 脫劃이 다수 보이며 第1張 1行과 2行부분에 걸쳐 毀損되어 있다. 紙質은 고정(벗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經典 하단부에 수침 흔적이 있다.

B) 解題 / 「法苑珠林」은 모두 100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68년에 불교의 세계관에서 三寶(佛法僧)에 관한 여러 문제를 광범위하게 그 전적을 인용하면서 해설한 백과서적 류이다. 저자는 顯慶年間(656-660)에 玄奘의 譯經사업에 동참하고, 또 道宣과 함께 律을 연구하면서 많은 불교문헌을 섭렵하였는데, 이때의 방대한 불교 관계 전적 가운데서 학도들의 편의를 위해 요점을 발췌 분류하여 편집한 것으로 三界 六道 舍利 六度 懺悔 등 100개의 중심 내용을 100권으로 엮었는데, 각 권은 내용에 따라 다시 몇 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총 668부가 된다. 이 책을 엮는 데 10년이 걸렸고, 인용한 經律論記 등은 400여종에 달한다. 그 중에는 중국 撰述의 僞書 雜書 道教 경전 등도 많이 인용되어 있어, 오늘날에는 없어진 귀중한 자료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위 본문의 印本은 경전은 唐의 道世가 번역한 100卷 중의 第82卷으로, 再雕本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初雕本의 卷末에 “大宋咸平元年奉勅雕編錄通慧大師賜紫沙門 臣 雲勝 較勘”과 같은 校勘記錄이 보이지만 再雕本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 교감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宋咸平元年 奉勅雕/ 編錄通慧大師賜紫沙門 臣 雲勝 校勘/ 內品監印經院 臣 陳曇榮/ 內侍殿頭高品句當印經院臣 鄭寄鈞”. 그리고 初雕本은 刊記가 없으나 再雕本에서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가 있다.

25) 고려초조대장경집성 편찬위원회, 「高麗初雕大藏經集成 2」(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71-80.

26)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에는 「법원주림」 100권이 霸函(제572함)에서부터 何函(제581함)까지 14함에 걸쳐 편입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27) (박상국), “II 板本別解說,”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서울: 재단법인 成保

한편, 위 ‘재조대장경 합차별 구성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이 재조대장경의 마지막 합인 洞函(제639합)의 끝부분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제571합인 更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조대장경의 후미 부분은 累加 방식으로 송신역경론 등을 추가하였거나, 초조대장경의 목록이 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대장목록’을 그 자리에 배치하였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을 고려한다면, 초조대장경의 목록이 更函(제571합)에 배치되어 있고, 초조대장경의 후미 부분 또한 累加 형식으로 그 불전들을 편입한 것을 감안한다면, 위 「범원주립」이나 여타 새로 발견되는 초조대장경 인본들은 당연히 초조대장경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다. 즉, 이것은 ‘초조대장경의 구성이 更函에서 제한된다’는 종래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구성은, 제1단계로 구성된 현재 재조대장경의 天函(제1합)부터 英函(제480합의 K.1087)까지의 불전이 현종 때 편입되었고, 제2단계로 현재 재조대장경의 杜函(제481합, K.1088)에서 楚函(제570합, K.1404)까지의 대장경은 문종 조에 편입되었으며, 제3단계로 문종조 이후에는 累加적으로 편입되면서 조조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위와 같은 큰 열개(構造)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실제의 각 초조대장경의 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구성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며, 파악된 세부구성의 각 경전의 函次數 및 卷數 등에 입각하여 초조대장경의 목록(이하 ‘초조대장목록’이라 약칭함)을 복원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는 주요과제라 볼 수 있다.

#### 4.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연구과제

초조대장경의 연구에 있어서 현재까지 서지학적 및 불교학계에서 명확하게

---

文化財團, 1988), 201.

규명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이나 학설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학설이나 견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 및 과제가 있다.

#### 4.1 초조대장경의 조조 단계

초조대장경의 완성 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즉, 중국의 개보칙판대장경(「개원석교록」 및 「정원속개원석교록」 등의 所收 불전) 및 거란대장경의 전래 및 송신역경전에 의한 초조대장경의 단계적 편입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소상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찌기 小野玄妙는 초조대장경의 雕造에 관하여 「二回二藏雕造說」<sup>28)</sup>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도 이것은 현종 조에 宋本을 底本으로 한 것을 그 一藏으로 보고, 문종 조에 거란장(契丹藏)을 저본으로 한 것을 별도의 일장으로 보아, 이 兩朝에 조조된 장경을 별개의 대장경으로 판단한 결과인 듯하다. 그러나 천혜봉 교수는, 守其의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약칭: 校正別錄)」에서 지칭하는 이른바 「國前本·國後本·宋本·契丹本」의 용어 사용 문제에서 ‘국후본은 거란판이 수입된 이후 그것을 底本으로 판각해 낸 초조본을 뜻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종·문종 兩宗朝에서 一藏씩 두 번 판각되었다고 보는 설은 再考가 불가피할 것이다」<sup>29)</sup>고 일축하고 있다.

위에 대한 문제<sup>30)</sup>는 ① 중국(宋)에서의 대장경 수입 및 ② 거란대장경의 수입 ③ 송신역경전의 수입 등의 문제를 구분하여 보고, ④ 아울러 상기 제3장에서 언급한 초조대장경의 구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초조대장경의 조조 단

28) 小野玄妙, “高麗佑世僧統義天の大藏經板雕造の事蹟,” 『東洋哲學』 제18권 제2호(1911년 1월); 千惠鳳, “高麗初雕大藏經,”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13. 재인용.

29) 千惠鳳, “高麗初雕大藏經,”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13-15.

30) 위의 문제 또한 이번 사업에 있어서, 초조대장경 實物 印本에 입각한 연구·조사의 과제 중에서 반드시 糾明되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계 및 완성에 대한 全貌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糾明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종 조 및 문종 조에서 각각 雕板한 대장경판 조조의 형식 및 체제가 일치하고 또한 그 함차가 계속된다면, 초조대장경의 지속적인 간행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一藏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따라서 초조대장경에 관한 小野玄妙의 ‘二回二藏雕造說’은 더 이상의 타당성이 없으며, 천혜봉 교수의 견해가 오히려 합당함을 파악할 수 있다.

#### 4.2 ‘國前本’과 ‘國後本’의 규명 문제

守其가 재조대장경의 판각을 위하여 校正한 결과를 수록하여 놓은 「교정별록」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국전본’과 ‘국후본’에 대한 구분 및 그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재조대장경 조조 당시, 화엄종의 승려로서 都僧統이며 開泰寺의 주지였던 守其가 校勘한 「교정별록」 권제30에 수록된 교감 중, 재조대장경의 傾函(제552함)에 편입되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K.1390)」 권제13에 대한 교감에서, ‘국전본’·‘국후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此卷 檢國前本及宋本中 於第十四幅二十行 ‘尔時太子復白王言’ 已下文脫 今准國後本及丹本 則有 ‘聽我出家 乃至 往四天王所或往等 九 八十八行文 今依二本足之… 又爲看舊前本及宋本者 具錄其文于左.<sup>31)</sup>

라 하여, ‘국전본 및 송본(國前本及宋本)’·‘국후본 및 란본(國後本及丹本)’ 또는 ‘구전본 및 송본(舊前本及宋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 수기는 ‘國宋二藏·國本·宋本’<sup>32)</sup> 등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수기는 재조대장경 조조를 위한 교감에서, 중국대장경과 초조대장경을 구별하고, 또한 여러 차례의 순서에 의하여 조조된 초조대장경 중에서

31)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三十, 高麗大藏經」第38冊, 721 上.

32)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一, 高麗大藏經」第38冊, 513.

그 전후를 구별하기 위하여 ‘國前本(舊前本)·國後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위와 같이, 수기가 재조대장경의 조조 및 교감 당시에 사용한 ‘국전본 및 국후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초조대장경의 인본을 ‘國本’이라고 칭하고, 조조된 초조대장경의 전후 차례에 입각하여 ‘국전본’ 및 ‘국후본’으로 구별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守其가 어떤 개념으로 ‘國前’과 ‘國後’로 구별하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국전’과 ‘국후’를 가름하는 時期는 과연 언제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여러 학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첫째, 김두중 교수는 “국전본은 현종 때 조각한 초조대장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국후본은 문종 때 續刻한 初雕經을 가리키는 것”<sup>34)</sup>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종 시대와 문종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前後를 판가름하는 견해라 볼 수 있다.

둘째, 천혜봉 교수는 “국전본은 문종 17년(1063) 이전에 판각한 初藏本을 뜻하고, 국후본은 거란판(契丹版)이 수입(1063)된 이후 그것을 底經으로 판각한 초장본을 뜻하는 것”<sup>35)</sup>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거란판의 수입년도인 106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를 판가름하는 견해라 볼 수 있다.

셋째, 정필모 교수는 “거란(契丹)이 고려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던 시기를 靖宗 4년에서 8년(1038~1042)으로 보고, 1042년 8월부터 [고려가] 거란의 ‘重熙’年號를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을 ‘國前’ 그리고 그 이후를 ‘國後’라 보면서, 결국 현종조의 판본은 ‘國前本’, 문종조(1046~1083)의 판본은 ‘國後本’이다”<sup>36)</sup>고 주장하고 있다.

33) 국전본과 국후본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서 초조대장경의 印本과 宋本과의 구별을 요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國本’이라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81), 66-67.

35)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東文化研究』 제11집, 175.

36) 鄭秘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22-23.

넷째, 오용섭 교수는 “국전본은 현종 때 宋의 開寶版으로 底本을 삼은 藏經이고, 국후본은 문종 때의 丹藏 수입한 후 [계 丹藏에 의거해 조조한 장경을 의미한다”<sup>37)</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두중 교수 주장의 큰 틀과 大同小異 하면서, 거란장의 수입과 이에 입각한 대장경의 조조를 염두에 두어 이를 국후본의 기준으로 하는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에 위 초조대장경의 ‘국전본 및 국후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과연 어느 학설이 정설인가의 평가는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는, 초조대장경의 각 불전에 대한 실제적인 원본(原本) 조사와 분석이 수반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장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쟁에 관한 사항은 초조대장경의 구성 및 그 완성의 단계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또한 현종 조에서 초기에 조조된 초조대장경과 문종 조를 비롯한 후반기에 조조된 초조대장경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위의 문제는 <초조대장경 DB 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초조대장경 實物 印本에 입각한 조사·연구의 과제 중에서 반드시 紓明되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로써, 초조대장경 조조의 全貌를 파악하는데 그 하나의 端緒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4.3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函次의 차이 및 각 경전 卷數의 異同 문제

본 절에서는, ‘초조대장경의 각 경전을 이루고 있는 卷數에 있어서, 초조와 재조에 있어서 그 권수의 차이 및 그 異同이 발생한 이유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수행하고

37) 吳龍燮,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1086), 228-229.

있는 “초조대장경 DB 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형태서지의 연구를 담당하는 남권희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우선 「화엄경」에서 이른바 「50권 화엄경」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湖林博物館> 소장의 「大方廣佛華嚴經」 卷第1, 2, 10, 26, 32, 37, 47, 48, 75' 9권 중에서 재조대장경에서 입장된 이른바 「60권 화엄경」 및 「80권 화엄경」이 아닌 또 다른 화엄경이 확인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재조대장경에서는 佛陀跋陀羅<sup>38)</sup>가 번역(418-420)한 「晉本 화엄경(60권); 이하 「60권 화엄경」이라 약칭함」이 湯函(제04 함)부터 道函(제108함)<sup>39)</sup>까지에 배치되고, 實叉難陀가 번역(695-699)한 「周本 화엄경(80권); 이하 「80권 화엄경」이라 약칭함」은 垂函(제09 함)부터 首函(제16 함)<sup>40)</sup>까지에 연이어 입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초조대장경에서 입장된 「화엄경」은 「60권 화엄경」이 아닌 「50권 화엄경」이 먼저 入藏·雕造되었고, 그 뒤에 「80권 화엄경」이 연이어 편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예나하면, <호림박물관> 소장의 「大方廣佛華嚴經」 卷第1, 10, 47, 48의 4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의 경우, 卷頭書名 아래에 ‘湯’이라 기입되어 湯函(제104함)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東晉天竺三藏佛跋陀(陀羅譯)이라 그 譯者名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 권제 1의 분량은, 재조대장경이나 大正新脩大藏經의 「60권 화엄경」 권제1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후미 부분에서 75行이 더 전개되고 있다.<sup>41)</sup> 따라서 이는 「50권 화엄경」이 분명하다.

38) 불타발타라: 異名: 佛跋跋陀羅, 佛度跋陀羅. 梵名: Buddhahadra. 譯名: 覺賢. 359년 북인도 출생, 408년 長安에 도착, 대방광불화엄경 60권 등 13部 125권 漢譯. 429년 71세로 入寂.

39) 고려재조대장경의 更函에 편입되어 있는 「大藏目錄 上」에 의하면, ‘東晉 天竺三藏 佛跋跋多羅(佛陀跋多羅) 譯’이라 記入하고 있다(「高麗大藏經」 제39권, 176).

40) 고려재조대장경의 更函에 편입되어 있는 「大藏目錄 上」에 의하면, ‘唐 于闐國三藏 實叉難陀 譯’이라 기입하고 있다(「高麗大藏經」 제39권, 176).

41)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高麗初雕大藏經集成1」(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00-208.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둘째, 「대방광불화엄경」 卷第十의 경우, 湯函에 배치되면서 「功德華聚菩薩十行品第十七之二」의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0권 화엄경」에서는 이 부분이 卷第十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따라서 이 「화엄경」 卷第十' 또한 「50권 화엄경」임이 분명하다

셋째, <호림박물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卷第四十七의 경우, 道函(제 108함)에 배치되면서 「立法界品之十一」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0권 화엄경」의 제47권은 「立法界品三十四之四」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화엄경」 卷第四十七' 또한 「50권 화엄경」임이 분명하다.

넷째, 「대방광불화엄경」 卷第四十八의 경우, 道函(제108함)에 배치되면서 「立法界品之十二」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0권 화엄경」의 제48권은 「立法界品三十四之五」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따라서 이 「화엄경」 卷第四十八' 또한 「50권 화엄경」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호림박물관>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 10, 47, 48'의 4권은 모두 「50권 화엄경」임을 파악할 수 있다.

류부현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sup>45)</sup> 「50권 화엄경」의 존재는 「出三藏記集」<sup>46)</sup>

1970), 395-400.

42)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 『高麗初雕大藏經集成』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17.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472.

43)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七,” 『高麗初雕大藏經集成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52.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七,”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695.

44) ① “호림박물관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八,” 『高麗初雕大藏經集成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5), 262.

②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四十八,” 『大正新脩大藏經』 第9卷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1970), 702.

45) 류부현, “晉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182-186.

46) 『出三藏記集』 (梁 僧祐(444~518) 撰): 出三藏記集錄 上卷 第二新集經論錄第一: “大方廣佛華嚴經五十卷 - 沙門支法領於于闐國得此經胡本 到晉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譯出 至宋永初二年(421)十二月二十八日都訖”(『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296.)

에서 처음 記入된 이래, 「歷代三寶紀(597)」와 「大唐內典錄(664)」 등에서 이 「50권 화엄경」을 定本(正本)으로 기입하였고, 「60권 화엄경」은 或本으로 간주한 바 있다.<sup>47)</sup> 그러나 「衆經目錄 (564)」 등에서는 「60권 화엄경」을 正本으로 본 경우도 있다.<sup>48)</sup> 그러다가 「開元釋教錄(730)」에 와서야 「『晉本 화엄경』의 그 初出은 50권으로 번역되었고, 後人들이 60권으로 나누었음(分爲)」<sup>49)</sup>을 기입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불전목록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위 「50권 화엄경」은 東晉의 沙門(道人)이었던 支法領이 倭國(從于闐國) 들여온 10만 개송의 梵語(胡本) 불전 중 3만6천 개송(得此三萬六千偈)에서 유래하며, 이를 「覺賢」이라고도 칭하여진 불타발타라에 의하여 418년부터 421년 사이에 번역되었고, 그 初譯(初出) 당시에는 50권이었으나 後人들이 60권으로 分卷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50)</sup>

한편, 「開元釋教錄 略出」에서는 대장경의 入藏을 위한 函次名이 매겨져 있고 또한 開寶勅版大藏經의 入藏目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개원석교록 약출」에서 이들 「화엄경」의 入藏 函次를 살펴보면, 「50권 화엄경」은 「坐(제105함)~垂(제109함)」함에 入藏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51)</sup> 그리고 實叉難陀가 7세기말에 번역한 「80권 화엄경」<sup>52)</sup>은 「拱(제110함)~臣(제117함)」함에 각각 入藏

47) ① 「歷代三寶紀」 {隋 開皇 17(597)年 費長房 撰}. “華嚴經五十卷 - 義熙十四年(418)於道場寺出 至宋永初二年(421)方訖 或六十卷 見竺道祖晉世雜錄”(「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532.).  
 ② 「大唐內典錄」 {唐 麟德1(664)年 道宣 撰}. 大唐內典錄卷第三 歷代衆經傳譯所從錄一之三 東晉朝傳佛經錄卷第五：“華嚴經五十卷 - 義熙十四年(418)於道場寺出 至宋永初二年(421)方訖 或六十卷 見竺道祖晉世雜錄”(「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684.).

48) 「衆經目錄」 七卷本 {隋 開皇 14(564)年 法經 等 撰}.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晉義熙十四年(418)沙門佛陀跋陀羅等共法業等揚州譯”(「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434.)

49) 「開元釋教錄」 {唐 開元18(730)年 智昇 撰}. 開元釋教錄 卷第三 總括群經錄上之三：“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初出元五十卷此 後人分爲六十 沙門支法領從于闐國得梵本來 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出 元熙二年(420)六月十日訖 法業筆受 見祖祐二錄”(「高麗再雕大藏經」 제47책, 1005.)

50) 一說에는, 「唐」의 法藏이 680년에 日照(天竺三藏 地婆訶羅)가 가지고 온 梵本 에 의해서 「50권 화엄경」의 缺佚 部分을 보완하여 「60권 화엄경」이 유통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法經의 「衆經目錄」(564) 등에서 이미 「60권 화엄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680년 이전에 이미 「60권 화엄경」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1) 智昇, 「開元釋教錄略出」 第一, 「大正新脩大藏經」 제55권 目錄部全, 725.

장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sup>53)</sup>

이와 같이 초조대장경에서 「5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을 나란히 入藏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초조대장경이 「개원석교록」의 체제에 입각하여 入藏되었음을 파악하게 하여주는 중요한 端緒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한 동반연구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초조대장경의 「50 권 화엄경」 수용 현상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차후 그 내용상의 문제들을 각각 ① 唐 智昇의 「개원석교록(730)」, ② 고려 守其 교감의 「교정별록」, ③ 고려재조대장경목록인 「대장목록」 등에서 상호비교하고, ④ 아울러 내용상의 卷數 구분이 어떻게 異同 및 차이가 있는가를 일일이 각각 분석하여 본다면, 초조대장경의 入藏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고 또한 각각의 그 세부연구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각 경전 권수의 異同에 관한 문제는 중국의 불전목록 및 초조대장경 각 경전의 실제와 재조대장경의 「대장목록」 등을 일일이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大集經」의 경우 「개원석교록」에서는 30권으로 구성된 경전이라 記入(목록)하고 있으나 「초조대장경」과 「개보칙판대장경」에서는 공(共)히 60권으로 판각하고 있으며, 「거란대장경」에서는 「개원석교록」에 의거하여 30권으로 판각한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54)</sup>

위와 같이, 대장경의 각 불전의 권수 異同 및 차이의 문제는 초조대장경의 실제 조사과정에서 그 정확한 권수를 파악하여야 비로소 향후 초조대장경의 불전 목록을 올바르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합차의 차이 및 각 경전 권수 구성의 異同 문제는 이번의 초조대장경 實物 조사과정의 연구에서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52) 智昇, 「開元釋教錄」卷第九, 「大正新脩大藏經」제55권 目錄部全, 565 下

53) 智昇, 「開元釋教錄略出」第一, 「大正新脩大藏經」제55권 目錄部全, 725-726.  
(695년 3월 14일 ~ 699년 10월 8일, 譯)

54) 「大藏目錄」上, 「高麗大藏經」第39冊, 513 下.

#### 4.4 ‘高麗 初雕大藏目錄의 復元’과 관련된 문제

정필모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고려초조대장경의 목록인 <초조 「대장목록」>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 근거로써, “재조 「대장목록」이 재조대장경의 합차 중 그 마지막 函인 ‘洞函(제 639함)’ 다음에 위치하지 않고 ‘更函(제571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만약 이것이 순수하게 재조대장경에 대한 목록의 著錄이라면, 그것은 목록 말미인 ‘동함’ 다음에 저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조 대장목록의 ‘경함’에 수록된 ‘대장목록’은 확실히 초조본에 대한 저록의 자리이며, 그 다음에 수록된 경전들은 재조시에 추가수록된 것이 확실하다”<sup>55)</sup>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재조대장경의 「대장목록」과 「교정별록」 중국의 불전목록 등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이른바 ‘초조 「대장목록」을 복원<sup>56)</sup>한 바 있다.

무릇, ‘고려 「초조대장목록」<sup>57)</sup>의 복원 문제는 초조대장경의 印本(原本)에 대한 實證的인 직접 조사와 분석이 일일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는 결국 추상화 내지 주관화 된 연구로 傾斜되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흩어져 있는 초조대장경과 일본 南禪寺를 비롯한 여러 곳에 散在한 모든 초조대장경의 원본을 실제로 조사·확인한 후, 이들 초조대장경의 각 원본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이후에야 비로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초조 「대장목록」의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시도된 바 있는 초조 「대장목록」의 복원’ 등에서 제70 함인 楚函에서 초조대장경이 마감되었다고 보았던 견해<sup>58)</sup>와는 전혀 다른 초조대장경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조사에서 <호림박물관> 소장의 「法苑珠林」 卷第82의 경우, 998년(咸平元年)에 조조된 개보칙판본을 底本으로 한 초조대장경이 제 583함에 해당하는 ‘會函에

55) 鄭駙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7.  
 56) 鄭駙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66-105.  
 57) 본고에서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목록에 대하여, 재조대장경의 목록인 「大藏目錄」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초조대장경의 목록’을 ‘초조대장목록’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58) 각주 55)의 본문 참조.

입장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sup>59)</sup>

위와 같은 문제 등 「초조대장목록」의 내용에 대한 규명은 초조대장경 디지털 화 사업과 관련한 동반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다시 새롭게 복원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초조대장경에 대한 佛典目錄은 반드시 정확하고 實證的이며 아울러 合理的으로 復元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sup>60)</sup>

#### 4.5 變相圖의 차이 및 변화 문제

개보칙판대장경과 고려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천혜봉 교수는 ‘宋本과 初雕本을 비교해 볼 때, 字體 字數 字位는 共通하나 版畫(變相圖) 구성내용과 版刻技法은 크게 다르다’<sup>61)</sup>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御製秘藏詮’의 각 권에는 본문에 평균 5種의 양각판화가 賦歌와 조화 있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帳幅의 插畫로서는 처음 보는 初期의 精刻이 된다. 필자가 이들 판화를 南禪寺에서 처음으로 實查하였을 때는 函次가 北宋本藏經으로 고쳐졌으며, 또 再雕本에는 그 판화가 삭거(削去)되고 본문만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서 여러 모로 구구한 생각을 갖게 했다’<sup>62)</sup>고 논술한 점을 注目하여 볼 수 있다.<sup>63)</sup>

59) 각주 24)의 본문 및 註文 참조 요.

60) 필자는 1982년도에 고려속장경목록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래, 「초조대장목록」의 올바른 복원 및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연구가 그 原本의 檢證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를 22년 이상 기다려 왔다. 이처럼 <초조대장경의 디지털 DB구축 및 조사연구> 사업은 단기(短期적인 안목으로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적어도 5년 이상의 長期課題로 세밀하고도 철저한 조사·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려 敎藏(속장경)의 디지털 DB구축 및 조사연구>사업 또한 이번 프로젝트와의 연계사업으로 차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後續課題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61) 천혜봉, 『羅麗印刷術의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1980), 86-88.

62) 천혜봉, 『羅麗印刷術의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1980), 86.

63) 변상도는 高麗寫經의 연구 등 불교미술분야에서 일부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초조대장경 및 재조대장경의 변상도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寡聞한지 모르나,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고 본다.

위의 문제는 개보칙판대장경과 고려의 초조대장경 및 재조대장경의 변상도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변상도의 판각기법 및 내용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변상도는 각 불전의 해당 卷의 핵심내용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설명하여 주는 佛典 판각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상도의 연구에 있어서는 '각 불전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그 내용이 변상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俱現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하는 長期的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초조대장경에서 이들 변상도가 개보칙판대장경의 변상도를 단순하게 복각한 것이 아니고 고려 자체에서 창조성을 띤 변상도를 조성하고 또한 판각하였다면, 우리는 이 변상도의 연구에서 고려초조대장경의 獨自의인 優秀性を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초조대장경의 연구와 관련한 탁월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조대장경 불전 각 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상도의 내용 및 그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할 뿐 아니라, 송본과 초조대장경 및 재조대장경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써 변상도의 차이 및 변화 문제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연구와 별도의 견해를 나타낼 수 있는 과제가 허다하다. 이들 문제점들은 본 프로젝트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제시하고 또한 연구하고자 한다.

## 5. 결 론

초조대장경에 관한 주제서지적 분석·연구는 형태서지적인 조사와 분석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연구가 施行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특징

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조대장경 각 불전의 각각의 형태적 특징과 현상에 입각하여 각각의 불전이 어떻게 성립되고 또한 「개원석교록」 등 중국의 불전목록과 초조대장경 각 불전의 구성 특징 및 재조대장경의 「대장목록」 및 「교정별록」 등과의 비교분석에서, 각 불전의 주제서지학인 특징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문에서 논술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초조대장경의 조조 배경 및 성립’에서는, 먼저 그 조조의 배경 및 동기는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佛法을 숭봉하고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초조대장경은 ① 「개원석교록」과 ② 「정원속개원석교록」에 수록된 불전, 그리고 ③ 거란대장경의 인본 및 ④ 송신역경론 등이 편입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제3장 ‘초조대장경의 구성’에서는, 제1 단계로 현존하는 재조대장경의 天函(제1함)부터 英函(제480함)까지의 불전이 현종 때 편입되었고, 제2 단계로 현재 재조대장경의 杜函(제481함)에서 楚函(제570함)까지의 대장경은 문종 조에 편입되었으며, 제3단계로 문종 조 이후에는 累加的으로 편입되면서 초조대장경이 조조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이와 같은 큰 열개(構造)로 구성된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실제의 각 초조대장경의 실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구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렇게 파악된 세부구성인 각 경전의 함차수(函次數) 및 권수(卷數) 등에 입각하여 초조대장경의 목록인 「초조대장목록」을 嚴正하게 복원하여야 할 주요과제가 남아 있다.

셋째, 제4장 ‘초조대장경의 주제서지적 연구과제’에서는 ① 초조대장경의 조조 단계, ② ‘國前本’과 ‘國後本’의 규명 문제, ③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函次의 차이 및 각 경전 卷數의 異同 문제, ④ 「초조대장목록」의 복원과 관련 한 문제, ⑤ 변상도의 차이 및 변화 문제, 등 앞으로 <초조대장경의 디지털 DB 구축 및 조사연구> 프로젝트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의 현황과 그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① ‘초조대장경의 조조 단계’는, 초조대장경의 구성 문제를 분석한다면 그 全貌

를 파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천혜봉 교수의 기존 견해 64)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② ‘국전본과 국후본의 규명 문제는 1980 년대에 그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과연 어느 학설이 정설인가의 판가름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일부 주장을 제외하고는, 초조대장경의 각 불전에 대한 실제적인 原本 조사와 분석이 수반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장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초조대장경 DB 구축 및 조사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초조대장경 實物 印本에 입각한 조사·연구의 과제 중에서 반드시 糾明되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로써, 초조대장경 조조의 全貌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端緒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합차의 차이 및 각 경전 卷數의 異同 문제’에서, 예컨대 초조대장경에서는 『50권 화엄경』이 獨特하게 입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대장경의 각 불전의 권수 異同 및 차이의 문제는 초조대장경의 실제 조사과정에서 그 정확한 권수를 파악하여야 비로소 향후 「초조대장목록」을 올바르게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函次의 차이 및 각 경전 권수 구성의 異同 문제는 초조대장경 實物 조사과정의 연구에서 가장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임을 파악하였다.
- ④ 「초조대장목록」의 복원과 관련한 문제는, 초조대장경의 印本 즉 原本에 대한 實證的인 직접 조사와 분석이 일일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는 추상화 내지 주관화됨으로써 偏向된 誤謬를 범하기 쉬움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등 여러 곳에 散在한 모든 초조대장경의 원본을 조사·확인한 후, 이들 초조대장경의 각 원본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이후에야 비로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초조대장목록」의 올바른 복원이 가능함을 파악하였다.

---

64) 각주 28)의 본문 참조 요

「초조대장목록」의 復元 문제는,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한 동반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正確하고 實證的이면서 새롭게 복원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임을 認知하였다.

- ⑤ ‘변상도의 차이 및 변화 문제’에서는, 「어제비장전」의 변상도 등 초조대장경에서 이들 변상도가 개보칙판대장경의 변상도를 단순하게 복각한 것이 아니고 고려 자체에서 창조성을 띤 변상도를 조성하고 판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상도의 연구에서 고려초조대장경의 독자적인 優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파악하였다.

이상 본론의 제4장에서 제시한 연구의 諸般 과제는, 형태서지적인 분석연구와 함께, <초조대장경의 디지털 DB구축 및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附加價値를 極大化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看過해서는 아니 될 重要的 意味와 價値를 제공할 것이다.

관련 여러 학계에서는 현재의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제간의 연구 및 합동연구에서 도출할 연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초조대장경에 관한 全方位의인 연구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면서 철저하고도 신중한 연구가 꾸준히 持續되어야 하며, 연구결과 또한 초조대장경 實物의 조사연구에서 제시되고 분석되는 객관성 있는 데이터(data)에 입각하여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導出되기를 함께 기대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大藏目錄」. 『高麗大藏經』第39卷. 서울: 동국대학교 譯經院, 1978. 174-215.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第38卷. 서울: 동국대학교 譯

- 經院, 1978. 513-625.
- 義天. 「大覺國師 文集」. 서울: 서울대학교 도서관. 영인본. <奎 40847>.
- 이규보. <大藏刻版君臣祈告文>.
-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관한 고찰.”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000.
- 강순애.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집(1995). 75-166.
- 강순애.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2집(1996). 115-170.
- 金斗種.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1.
- 金曉吞 譯註. 「高麗史 佛教關係史料集」. 서울: 民族社, 2001.
- 류부현. “晋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179-194.
- 吳龍燮.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1086), 213-250.
- 李箕永. “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제48.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1-17.
- 鄭駙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 鄭駙謨. “高麗初雕大藏目錄의 復元.” 『書誌學研究』 제2집(1987). 3-108.
-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연구」. 서울: 景仁文化社, 1980.
- 千惠鳳. “高麗初雕大藏經.”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9-24.
- 千惠鳳. “高麗再雕大藏經의 書誌學史的 視角.”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377-384.
-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高麗大藏經 研究資料集 II』. 경남 합천군: 해인사, 2533(1989). 25-78.